朝鮮日報

夕刊朝刊合六面

社說

朝鮮의基督敎宣敎問題

木浦貞明校事件에關하야

一

吾人이朝鮮基督敎會를論한바적지아햇고 또는항상公正한見地로서冷靜한批判을試한바이엇섯다 現代에는宗敎否認或은排斥의氣勢가 자못旨허가는傾向이잇다 그의理論的基礎또는現實的必要에關하야는 吾人이제全혀論外로하는바이다 다만이제吾人은國際的生活場裡에 衆多한民族들과幷立한 朝鮮人인見地로서 그리고近代史上基督敎가朝鮮에준바影響 밋그에從事하는外國宣敎師—주장으로米國의人民들과關係되는歷史를一瞥하며서 애오라지一言을試코저하는바이다 그는與下木浦에서發生한貞明女學校의事件이關聯하야 吾人은그것이다만一女學校의問題가아니오 자못朝鮮人으로서國際的關係가잇는問題이라고認定하는外닭이다

二

大部의米國人宣敎師에因하야基督敎가朝鮮에布敎된지가 이미四十餘年이되엿다 其間 敎育衛生밋一般文化的援助에關하야基督敎가朝鮮近代史上적지안흔것을 吾人은否認할수업다 그리고또舊韓國當時로부터 米國의人士로서各種의方式으로朝鮮人을爲하야 盡力하얏든者가잇섯슴을記憶할째에 一抹의友誼가그들을向하야趣回됨을깨닷는바이다 吾人이그의自體의人格的또는民族的威嚴의觀念을굽힘이업시가장公正히思惟하여서 吾人은아즉그들米國人을糾彈할甚大한不法을發見치못한바이다 이러한見地에서 朝鮮人과밋米國人의過去밋現在를觀照함이 가장善良한方法인것을 確信하려한다

三

貞明女學校는 木浦에잇는一個長老敎學校로서 米國人宣敎會의經營에屬한者이다 그리고同校敎員李某에關한問題로서 最初一部의女生徒間에 同盟休學의事件이잇섯고 이事件에激憤한米宣敎師某의無禮한言動에因하야 드듸어거의全校閉門의運命을보게되엇고 現今同問題에關하야 木浦를中心으로자못不少한人士들의憤慨를닐으키게되엇스니이는 자못吾人의遺憾으로생각하는바이다 近年新興하는學校騷動은 자못彼我의關에업거니와 特히宣敎會經營의學校에잇서서 一層頻煩한傾向이잇고 그것이써로人種的偏見에基因한反感 葛藤으로서하게되는것은 매우嘆惜할바이다 그의가장顯著하든者로서 吾人의記憶에남어잇는者로만말하여도 前者平壤밋海州의兩個의宣敎會經營의女學校가 現今貞明女學校에發生한事件과類似한動機밋順序로서 當該地方밋一般人士의憤慨와不平을품게하든바이라 吾人은먼저米宣敎會의士女諸氏의깁흔反省을促하는바이다

四

歐米人의宣敎事業의背後에는 반듯이 軍國的侵略主義와或은經濟的帝國主義의後繼部隊가잇는것이라한다 이는世間의識者가一般으로是認하는바이다 그러나米國人士가當時자못不少한貢獻과金錢을提供하고朝鮮에宣敎키를努力한바에關하야吾人은이제不純한動機를摘發치아니하며 아니될理由를發見치아니하엿다 그는幸인지不幸인지米國의對朝鮮政策은宣敎會의事業의範圍를벗어서그의侵略的或은帝國主義的의鎖鏈을늘어넘에미츠지는못하엿섯다 彼等의宣敎事業이直接으로吾人에게적지안흔貢獻이잇섯고 또는政治上社會上友誼로서同情할多少의人士를彼等의人民中에所有하게된吾人은 이제彼等에게幾部의過失과밋蓋然的의動機論으로서 곱삽이彼等을指彈함에不可함을밋는바이다

五

要컨대現代의自覺한朝鮮民들은그의進步된狀態가이미宣敎事業開始當時의比가아니다 朝鮮人은各自가그의 屈辱되는人格的또는民族的尊嚴을光復코저努力하는途程에잇다 그에는日本人이거나英國人이거나또는米國人임을 區別할理由가업다 그리고米國의人士는 그의恩惠를베푼다는理由로서朝鮮人에게屈辱을强要할수업는일이다 이는現下의朝鮮人이 써써로宣敎師에向하야抗爭을試하는바이다 그럼으로吾人은懇切히먼저米宣敎會의諸氏의賢明한反省을促하고 또하야同問題에當面한우리의人士들이 累十年來友誼를더하든 善隣에對하야 禮儀를失함이업기를切願하는바이다 君子交를絕함에口에惡聲이업슴은今古의通則이라하니吾人의準則으로할바이다 하물며吾人은方今友誼로서이러한當面한問題를解決함에綽綽한餘裕가잇슴에라

『罷業은中止하고 租界武備는撤廢하라』

獨逸領事의調停案

(廣東三十日發) 沙面衝突事件에對한交涉은英佛이尙今廣東側과交戰하는中에開催되엿는데問題의中心은發砲의責任이英中에在한가를認定함에잇는바兩者가서로相手方의發砲를主張하야讓치안는今日에此點은進步이絕對로不可能함으로써獨逸領事는中國側의罷業을即時中止하고租界의武備撤廢키를第一의交換條件으로하엿다더라

張氏의時局收拾策

天津서三巨頭軍事會議 對外的步調를一致할터

(奉天二十九日發) 張作霖氏는再次天津에軍事會議를召集하고 馮、張、吳三派의勢力을團結하야對外的步調를一致히하야時局을收拾하고上海、北京、天津에奉天軍을駐屯식혀治安維持에任할作戰等에關하야協議하려고王永江氏에게電報가來하엿더라

英佛의米獨提議拒絕

共同調查委員會組織案

(廣東三十日發) 米獨領事는二十九日英佛領事에對하야共同調查委員會를組織하야實地檢證을하자主張하얏는대英國領事는明瞭한事態에就하야그러할必要가업다하야此를拒絕하얏더라

『徐公使는退去하라』

在伯林中國學生의要求

(나우엔三十日發) 伯林在留의中國學生은卄七日其代表를中國公使館에派하야目下獨逸을視察中인徐樹錚氏의退去를要求하엿는바그는學生等이徐氏가本國政府의內命을受하야軍需品의購入及交涉等을하고자온줄로信하고잇는外닭이라는바中國公使館員은此等學生에게文書로써徐將軍의行爲는決코中國의不利를招來하는일은되지안는다는保證을與하야公使는其保證을自己의生命으로써誓하엿스며徐氏는在外中國留學生會의會長이라하야昨日『힌덴부루히』大統領으로부터招待를受하엿더라

奉軍의新兵募集

安奉沿線一帶에亘하야

(東京電) 安東縣에滯在中인奉天衛隊旅附滬玉書少將은張作霖氏의命을바더安東縣八道溝洪昌錢에留連하면서新兵數百名을募集中이라는데今後는安東縣뿐아니라安奉沿線一帶에서도大規模로募集中이라하며滿鐵當局과도軍隊輸送의諒解를어든듯하다더라

全印度에反英氣勢

露國의所致라고空氣險惡

(나우엔三十日發) 印度에서는全國에亘하야非常한反英國宣傳을行하는中인데此는다露國의所致로認定되는바英國外交關係는斷絕할는지도不知하겟다더라

航空示威

英京倫敦에서

(倫敦二十九日發) 倫敦에서는航空大示威가擧行되야各種의百二十臺의飛行機가參加하고皇帝皇后를비롯하야各大臣以下多數知名의士가出席하엿스며十萬의觀衆이參集하엿섯는데航空大臣은蒸汽船과海軍大臣이水上飛機及消防航空防衛의術을掌握한다하면大臣의職을辭할터이라고豪氣를示하엿더라

田中駐露大使

莫斯科로出發

(東京電) 旣報와갓치에드、共和國聯邦國大使田中都吉氏는山崎參事官、佐川、杉下、伊藤書記官、島田、宮川通譯官을隨하고三十日午前八時四十五分東京驛發特急으로出發赴任의途에就하엿는데一行은朝鮮滿洲를經由하야莫斯科로向할터인바東京驛에는露國大使『콥』氏以下同館員幣原外相、中村政務、出淵事務次官內田顧問官其他數百名의餞送이잇섯고田中大使는『콥』大使、幣原外相等과굿은握手를하고元氣잇게出發하엿다더라

兩稅移讓問題와

政友態度稍緩和

(東京電) 政友會의稅制整理案은旣報와如히山本、武藤、大口三氏가協議한結果此의根本方針을決定하야大口氏로써此具體案을作成식혀는대今後는專혀此具體案에基하야審議를進行할順序로되여잇다 卽右稅制整理案은地租及營業稅를地方에移讓할目的으로써各種의立案을한것이나政友會로서는此의移讓論을아모조록本年度로부터實行식히지안흐면안되겟다고하야此를固執하고政局에大波瀾을惹起하려고하는意志는無한듯한데其審議를進行함에잇서서는此의方針下에愼重히審議를進行할態度에出할模樣이더라

政友態度軟化?

地租移讓問題에

(東京電) 高橋前政友會總裁는最近地租移讓은必히政友會에서固執할것이아니오要는自治의確立에잇다는意見을漏하엿는데右는政友會內의地租委讓論에對한輿論을代表하는者로觀하는바同會內에는來年度부터實行하기를斷乎히主張하고愼重히取扱하려는者가出한다는理由로하는것은

一、委讓斷行後中央財政缺陷의補塡困難

二、衆議院에서通過할지라도貴族院은委讓案에反對할터이오其後에는政友對貴族院의關係를益益惡化식힐憂慮가잇다

三、委讓問題에對하여는本黨內에도議論이多한바政友會가此를目標로하야進할時에는政本合同을妨害함

四、地租委讓을捨할지라도他의問題로써憲政會에當할터이오又政局을有利히引導할수가有하다고

云한다又此의議論을支持하는高橋前總裁는政憲協調支持者인關係上專혀此論을採함으로此說의背後에는種種의事情이잇는듯하더라

司法官更迭發表

三十日左와如한異動發表가잇섯더라

大邱覆審法院部長判事 窪頭 兵一

補高等法院判事

淸津地方法院長判事 高木安太郞

補大邱覆審法院部長

大邱地方法院長判事 多田 ?

補淸津地方法院長

大邱覆審法院判事 金川 廣吉

補大邱覆審法院判事

大邱地方法院部長判事 荻 昌 ?

補大邱地方法院部長

京城地方法院判事 佐竹 龜

補大邱地方法院判事

光州地方木浦支廳判事 中村 順

補京城地方開城支廳判事

大邱覆審判事 小山 正生

補釜山地方判事

釜山地方晉州支廳判事 松本 茂

補公州地方判事

新義州地方判事 江上 綠輔

補釜山地方晉州支廳判事

全州地方判事 越尾 鋼男

補新義州地方判事

平壤覆審判事 宮內 石直

補全州地方判事

光州地方判事 武藤將之助

補平壤地方判事

京城地方判事 安田 宗雄

補光州地方判事

咸興地方判事 荒卷 昌元

補平壤地方判事

平壤地方判事 坂 喜 ?

補咸興地方判事

京城地方開城支廳判事 中村 ?

光州地方木浦支廳判事 深田 留登

公州地方判事 永田 ?士

公州地方晉州判事 江上 綠輔

新義州地方判事 越尾 鋼男

全州地方判事 宮內 石直

光州地方判事 石川莊四郞

豫審掛을命함

中、日經濟絕交說과 南浦水産界의洶洶

非賣同盟은事實無根?

요사이에鎭南浦에는某日本人側水産業者間에서는今番中國에突發된民衆的大動亂과此에伴한日英經濟絕交說을부하고鎭南浦를中心으로한沿岸諸島에서年產三十餘萬圓以上을產하여오든 乾玉筋魚(멸치)가該『玉筋魚의唯一한消費地이든中國上海及香港方面에서非賣同盟의大打擊을受하게되여今後는輸出의途가全然杜絕케되엿다』는 惡報를傳하야產地島民을威脅하는同時에 時勢를 强壓하는態度에 出하는者有하나此에對하야鎭南浦斯界의某實業家는말하되『上海香港方面에서朝鮮産乾玉筋魚의非賣同盟을斷行하야輸出의希望이無하다는說은寛報가市內某處에入하엿다는說을聞한지는벌서四五日前의事이엿다 然이나此는某貧弱한新聞의虛傳일뿐이오要路當局은勿論斯業者들은全然該說의出處조차未知하는바이다 勿論中國動亂의影響이無한은아니나特히『朝鮮産乾玉筋魚의非賣同盟』云云하는宣傳은奸商輩들의恒用手段인産地島民의抑壓策의一로造出한 風說이아닌가疑訝한다 論보다도事實이現在日本神戶時勢가保合되기는하나數日前보다는約一圓의高騰을示한點으로만보아도非賣同盟云云의說이奸商輩의狡猾한策略인것을確知하기에躊躇할것업을까한다』云云 (鎭南浦)

悲憤한大道演說

延吉學生排外運動 外國의侵害를痛論

延吉縣學生들은排外에對한示威運動을計劃中이라함은旣報어니와지난十八日에學生團이宏大한演說會를當地師範學校體操場裡에서開催한以後延吉、和龍縣에잇는商工學聯合會가成立되야延和商工學界人士들은漸漸排外熱이極度로膨脹되야잇는데이제와서는端陽節(卽五月五日)을利用하야局子街에서大道演說을하게되얏는데當日에는商會場인北山學校에서는全部가半旗를달고各處로부터오는人士들 의到着함을 기다려畢竟모힌群衆이隊를지어거리거리모퉁이모퉁이마다도라다니며大道演說을하얏는데그演士의하든말을大綱綜合하건대 『우리中國사람은政治的으로나經濟的으로나侵略的또는迷信的으로外人에게對한野慾을成就하려한이업섯다 이것은今日人類의自由와平等을爲하야우리가가장努力할것이라고하며또는中國은勞働者가다른나라보다第一多數이다 이勞働神聖을부르짓는이째에잇서서우리는도로혀이것을자랑하고십다그러나今番上海와밋各地에서犧牲된우리勞働者들은 確實히 外人의侵略的또는非人類觀의抑壓한아래에서우러나온...

錦繡의平壤에添花計劃

牧丹峰一帶에噴水池不夜城

溶溶한大同江淸流와牧丹峯勝景으로써世間의定評이有한平壤은四季探勝客이끈치지아니함으로平壤府와밋府民은엇지하야此天與地形을來客의눈압헤더욱아름답게하야그네들의旅情을慰케하고錦繡江山이란名勝을廣히四海에壓로千載에流布傳達케할가를深切히늣기는바이나只今現狀으로는오직天然의態가太古의跡을잇지못할뿐이고何等現代의公園으로價値를發揮할人工을缺하기때문에觀者의게 寂寞의 感을依치아니치못하얏섬으로平壤府에서는獨逸人의計劃에基하야大規模設計를하얏든지이미久하얏지만財源의不足으로至今까지着手치못함을遺憾으로알엇던바府民의熱望은漸漸强烈하야서箕林里에公設運動場이實現됨을따러適當한地點을擇하야二三個所에噴水池를設하고또運動場附近에는茶店、休憩所其他興味를添할것을設計할것이고夜間에는探照燈으로써乙密、牧丹一帶는全部電飾化할터이고電車는箕林里까지延하게되고水道도또한延長될터인故로此로부터平壤은彩面을呈할터이라더라(平壤)

銓衡委員부터不信任決議

新灣靑年會에서 ◇靑總任員否認問題

新義州新灣靑年會에서는去六月二十五日에同會事務所에서委員會를열고靑總執行委員을選擧한銓衡委員을不信任할것을決議하고左記와如히理由書를發送하엿다더라

銓衡委員부터不信任하는理由

一、去六月十六日附로發送한『任員銓衡에關한陳述書』에依하면『地方靑年運動의質과量의兩面의分布狀態를參酌하야一道에三人或은二人一人으로選出한다』고宣明하엿는데不拘하고西朝鮮에在하야靑年運動이第一盛旺한平壤에서一人의選出이無함은곳銓衡委員의陳述書에서出한所爲가確實한事...

投稿歡迎

十四字 五十行 以內 作所氏 名明記

憑公營私의股票

面長

◇우리錢村은旱魃로因하야벌서부터灌漑가自由롭지못한故로如是히幾日을繼續하면바야흐로危機에瀕한現狀이다그런데君은眼前에現出되는이慘狀에는不拘하고看視못할重大問題임에不拘하고非人道的惡事를敢行하야無辜히呻吟하는良民을無理히蹂躪하며頭上에加霜의苦痛을加한事이有하니그는卽緣村中에在한本面面長宋某村同分配團이다

◇君과木郡小作人組合長洪某兩人의所有畓이有한바門에用水를隣近農民等의支流灌漑하는水路關係者의厚意로數年을無償用水하여왓슴은君等이이제關係人에게對하여眞心謝禮하여야맛당할것이다그런데君等은今日에至하야도리혀該狀을同分하자는無理한要求를提出하니背恩忘德의行爲도分數가업다

◇君아正當한權利主張은不問하고實問題로만보더라도田畓의灌溉有不足인今日에만灌漑事業을하든水源을우리關係者에게此를同一히用하려한다면...

◇君아良心이잇거든過去의隨行을懺悔하여라우리作人一同이君에게此를質問하엿슬時에君은어리석고도模糊한辭令으로其責을免하려고하엿다...

『委員制는不穩하니 會長制로하라!』

金堤警察의奇怪한干涉 緊張된三靑年合同總會

旣報=金堤에잇는金堤、無產、新興靑年會는三個團體가分立對峙하야金堤의靑年運動은沈滯의狀態에잇슴으로이를切實히遺憾으로생각한三個靑年會幹部들은旣히各團體聯合幹部會를開催하고三個團體의合同大會開催의件을決議한後準備委員을選擧하야諸般準備에着着進行中이라함은旣報한바와如하거니와지난二十八日午後二時四十分부터 豫定과 如히邑內鄕校明倫堂에서三個靑年團體合同大會를開催하고準備委員(新興代表)陳錫萬君의 司會下에 李浚吉君의開會辭와經過報告가잇슨後臨時議長을選擧한바趙周安君이被選되야議長의就席으로順序에依하야各團體의統一合同을滿場一致로可決한後同大會準備委員의起草한宣言、綱領、規約은可納하기로決議하고卽席에서三個靑年團體合同大會를開催하고趙在運君의司會下에陳錫萬、趙周安兩君으로選...

突然히

金堤警察署高等係臨場警官은『靑年會면會長이有하지執行委員長이무엇이냐委員長制로하면會自體로承認할수업스며會員의一般責任을가지지못하엿스니委員長의名義를會長으로고치라』는 糊模한干涉이잇슴으로一般會員은極度로憤慨하야議事를中止하고委員長이正式으로交涉을하엿스나終乃『萬一곳치지아니하면解散을命하겟다』는 威脅的干涉을하며 一般은크게憤慨하야『本會를無視하고그와가튼無理한말을하는것은到底히容認할수업다』고場內는殺氣가...

激烈히

緊張되여이러니저러니하는동안에四十分의長時間을浪費하엿슴으로不得已會長은十分부터休會를宣言하고同六時三十分부터繼續開會하고同十時三十分까지議事를進行하엿다는데委員制는保留하기로한後會長制로하기로하고規約을通過한後任員을選擧하야三時(?)로閉會하엿다고

一、朝鮮靑年總同盟에加盟하되(金堤)

一、一切手續은委員會에一任할일

執行委員長 趙喆熙 同委員 金鎭一 李彩吉 趙鎭滉 趙庭 ? 朴淵 ? 趙周安 趙在運 張鉀 ?

어린이野遊會

利原天道敎 夏季를利用하야

利原天道敎어린이會指導部에서는日曜日마다宣活會를開催하야少年少女에게自然에對한常識을涵養하기爲하야本月五日을期하야夏季野遊大會를開催하려고準備中이며當日에는天道敎少年少女의아름다운音樂과指導者側의講演等이잇스리라더라(利原)

停止되엿든 全州勞働夜學

七月一日부터復活

旣報=全州靑年會에서는伊來休學中이든夜學會를來七月一日부터更히開始한다는바特히無産學生이며勞働兄弟들의多數入學을바란다더라(全州)

慘狀을보고 驚愕한總監

龍興江改修問題 期於實現言明

旣報=龍興江改修問題로政務總監下岡氏는去二十六日二番車로永興에來到하야自働車로實地를踏見하고罹災民의情境을視察한後該地方을爲하야明年度에는期於히着手하겟다고言明하엿다는데一般은一條의生路를得하엿다하야매우欣悅中이라더라(永興)

上一公普校

學年延長期成

咸州郡上一公普校는大正十年十一月에同郡九川、西部、東部三面有志의協力으로設立된바修業年限四年制로今春四十二名의卒業生을내엿스나修業年限이短함으로恒常延長의必要를期하든바今春卒業生들은中等程度學校에入學키難할뿐不啻라實際에從事코자하는者도普通常識이淺短하야자못遺憾임으로區域內有志는去二十一日에同校內에서學年延長期成會를組織하고方今會務執行에努力한다더라(松坡)

靑總任員全部承認決議

海州靑年會에서

지난二十八日下午九時부터南旺町李圭曦氏宅에서海州靑年會委員會를開하고아래와가튼事項을決議하고同十二時頃에散會하얏다더라

一、靑年同盟에서銓衡한執行委員二十九人과檢查委員七人에對하야는異議업시此를承認할事

二、近者海州地方에서는여러가지로惑世誣民하는詐欺輩들이出沒하야或은靈化敎或은神理宗敎等僭稱하야天照皇大神을奉安하야無知한民衆을迷惑하며邪惡한最惡風을市非農村에여러人의所見에서取하야其害毒이莫甚한즉이에對하야는海州에잇는各團...

盛況의國境庭球

優勝은高金組

旣報=安東縣靑年會主催와東亞本報兩支局後援의第一回國境個人庭球大會는豫定과如히去六月二十八日午前十時에安東縣普通學校코-트에서靑年會委員長李在奎氏의開會辭를비롯하야審判員李大觀氏의競技及審判에對한注意說明이잇슨後金雨英氏의始球式으로大會는始作되야朴田組와朴淡組의對戰으로第一回豫選戰이始作되야東西兩코-트에同時에李大觀、林亨漆兩氏의 審判下에同十一時三十五分에맛치고第二回豫選戰은午後一時三十分에시작하엿는데그中安東主將李仁龍組와新義州金啓善組와對戰하게되고北下洞主將崔相屹組와安東縣趙秉謙組가對戰하게된것은 一般의 興味를 더욱 돋엇스며新義州金啓善組가다시强敵인北下洞崔相屹組와對戰케됨에一般의聲援은熱中하고崔相屹組는必勝을期하고攻擊守備에必死的으로努力을하엿스나破하고攻擊하는金啓善組에게는徒勞而已이엿스며準決勝戰은午後四時에始作되엿는데金啓善組와安東宋應天組가對戰하게되고新義州高鳳梧組와安東李昌郁組가相對하게되엿스나實力으로보든지技能으로보든지安東軍은넘어도對手가되지못하야一般의興味가적어젓는대金啓善組의

自慢과

宋應天組의必死的努力으로三回를거듭하야善戰한金啓善組는慘敗를當하엿스며最後로高鳳梧組와宋應天組가決勝을하게되여高鳳梧組는無難히第一을하게되엿스나强弱이넘어도不同하야決勝戰으로는아모볼價値도업스리만큼無趣味하엿는데後로閉會를하엿는데同五時半에盛況裡에優勝旗授與式을한後에同大會에寄贈한人士의氏名은如左하더라

金雨英內衣二件天下堂手巾一打共濟會金冊十冊黃河泉洋襪半打張驪植사이다一打李昌郁手巾一打金錫吉運動靴二足 (安東縣)

元山에열닌 音樂舞踏演劇

兩日間盛況

元山新人同盟에서는去二十八九兩日에音樂舞踏演劇大會를開催한다함은旣報하엿거니와同日下午八時부터同樂座에서開催한바兩日에다人場者는數百名의大盛況을이루엇는데左記有志의同情도잇섯다더라

發虎樹李彩姬各十圓 佛敎師康基鎭梁松子金山月李花香各五圓 元山自動車部四圓 韓鉉範以二圓 丁基豐金光雲尹斗善全廷淑崔鎭郁女史柳致洙徐弘烈金仁範無名氏明信洋服店申石均趙秉聚無名氏各一圓 (元山)

開城地波里川

改修工事

五區로分하야 九月부터着手

開城郡松都面池波里川改修工事는日下讀川郡松都面土木技手의손에設計되야近近測量이終了되는따라設計書와共히內務局土木課河川係에提出하야서認可를得하리라는바此河川은開城市街의中心을貫通한것으로總工費四十三萬八千四十二圓이오工事의內容은二千五十間인바其工事의內容을細別하면此를五區에分하야

第一區 自蔘製造場으로부터高麗橋外延長三百八十間인바河幅五十尺에深六尺으로

第二區 高麗橋로부터不泉橋外延長七百三十間인바河幅七十八尺에深七尺으로

第三區 禾泉橋로부터耕泉合流點外지二三四十間인外河幅一百三十五尺에深六尺으로

第四區 耕泉合流點으로부터駝橋外지延長五百間인바河幅一百五十尺에深六尺으로

第五區 駝橋로부터下流로二百間潛川

以上과如한바此를向三年間繼續工事로하야今年에는松都面에二萬五千圓、國庫補助에二萬五千圓의豫算으로써九月中旬頃부터第四第五兩區의工事를開始할터이며第二第三兩區等의人家稠密한區域에는河川兩側으로二間半에人道를設한計劃인바此에要하는地面은敗地는買收하고家屋은移轉費를交給하리라더라(開城)

産業組合設立

英陽에서

慶北英陽郡에서는當地有志諸氏의發起로産業組合을設立하려한다는데該組合의營業課目은共同購買、共同販賣、生產物販賣斡旋等이며組合員은當郡在住人에만限한다하며出資는一口에五圓이라는데該組合이期成되는時는郡民에게莫大한便利와利益이잇스리라더라(英陽)

各地의端午行樂

◇松禾脚戲 松禾郡松禾面邑內市民一同主催와本社松禾支局後援으로陰五月五六兩日에脚戲大會를開催하얏다함은旣報와如하거니와豫定대로五月午前九時부터松禾社稷川邊白沙原場에서會長姜秀模氏의開會辭로開幕하야翌六日午後一時頃에盛況裡에無事히散會하엿는대受賞者는如左하다더라

◇大人一等 洪鉉煥 二等 趙鳳夏

◇三等洪京鳳 各牛一頭式

◇總角一等吳能喆 二等吳興植

◇三等高洙漢 各等重賞

◇學生一等金俊達 二等河俊溪

◇三等李相云 各等重賞(松禾)

◇義州運動 旣報=義州市民主催와東亞、朝鮮三支局의後援인市民大運動會는豫定과가티去二十五日午前十時부터義州公園그라운드에서開催하엿는바觀衆은定刻前부터蝟集하야公園은人山人海를이루엇스며會長의式辭와東亞支局長張昌植氏의公平無私한審判下에順序대로進行됨을따라拍手喝采의소래는天地를震動하엿스며審判長의大人一等鉦外六十餘種의競技는마치고閉會하니째는午後六時이엇섯는바마라손自轉車의競技를마치고閉會하니때는午後六時이엇더라

優勝者氏名은如左하다더라

◇마라손一等承明禮 二等李泰河 三等金顯玉 四等李繼成 五等吳利謙 六等黃貞洛(以下略)

◇自轉車一等張義喆 二等張義賢 三等金乃奎 四等朴山玉 五等吳七星 六等李道敬(以下略)

(義州)

◇達泉蹴球 達泉市民主催로去月二十六日午前九時부터當地河邊運動場에서蹴球大會를開催하엿는데各技術은天才的인十數團체가參加하야當地浦團體와達泉團의決勝戰에勝敗의辯論이...

◇束波脚戲 ...

◇鞦韆會와演說 義州郡古城面龍山洞基督勉勵靑年會主催로鞦韆大會를去二十三日(端午)에開催하고多數觀衆의集함을期하야屋外演說이잇섯는데演題는如左하더라

人生觀 張承植 協助 金信道 女史 (新義州)

◇義州運動 義州市民主催와各新聞支局後援의脚戲大會는豫定과가티去二十六二十七兩日間義州公園그라운드에서開催하엿는바兩日의運動이와如한大盛況裡에二十七日午後七時三十分에閉會하엿는데受賞者는아래와갓다더라

一等黃雲錫 二等貢雲? 三等? 文獻(義州)

◇遮湖運動盛況 去月二十五六兩日間遮湖市民主催로當地靑年會運動場에서運動會를開催하엿는대當集한觀客은四千에達하야盛況裡에閉會하엿는데受賞者는如左하다더라

◇批峴脚戲 平北義州郡批峴面響馬市民主催로脚戲大會를開催한다함은旣報와如하거니와當日에四方으로雲集한觀衆이七八千人以上에達한盛況裡에會長李基唐氏의開會辭가잇슨後脚戲를始作하야翌日午前에第一回小兒決勝戰을맛치고第二日에는平北一帶에有名한力士들이多數參加하야매우猛烈한豫選戰이잇슨後同日午後八時頃에決勝戰을맛치고批峴樂隊의雄壯한奏樂裡에施賞한後大盛況으로閉會하엿는데受賞者氏名은如左하다하며特히當地有志諸氏의發起로角力時報社를組織하고每日四回式三日間報社事務에從事하엿는데그敏速한報道와滋味잇는記事는一般觀衆으로부터熱狂的歡迎을밧엇다더라

一等鄭福允 二等金汝弘 三等李時正 四等金英俊(批峴)

◇碧潼脚戲 平北碧潼郡에서는市民主催로지난六月二十六日에當地五事軒運動場에서脚戲大會를盛大히開催하엿는데受賞者氏名은如左하다더라

一等金濟善 二等孫成龍 三等趙成魯 (碧潼)

海靑巡寫隊

兼二浦에서映寫 二日間大盛況

黃海道海州天主敎會海星靑年會에서는該會의機關으로設立된海星幼稚園의經費를補充하기爲하야活動寫眞巡廻隊를組織하고五六靑年의獻身的熱誠으로地方巡廻를行하는곳마다歡迎을바다오던바本一行은去二十六日兼二浦에到着하야本報支局의後援으로當地假設劇場에서映寫會를開催하야滿場의大盛況으로二十七日에閉會하고二十八日午後三時發列車로歸鄕하얏는데有志의同情도多數하얏다더라(兼二浦)

平壤火災損害

昨年六個月間 三十三萬餘圓

本年에入하야平壤府內의大小失火數는六月二十七日外지五十七回損害額은三十三萬四千八百二十圓인데客年은六月末日外지六十一回損害十萬三千五百九十四圓이엿는바兩年을比較하면回數는거의갓지만은損害額은非常히多하다는데最近損害十萬圓의高等普通學校가잇고昨年에는三月十一日에燒失된南門町二十戶本十萬圓의損害가잇지만그래도昨年의損害가多한것이라더라(平壤)

謹告

報道의迅速을爲하야 從來의朝刊地方版을廢止하는同時에 朝刊을第一第二의二版에分類하야 地方에는第一版을發送하고 京仁及開城에는第二版을配布하기로하고 今七月一日朝刊부터이를實行하게되엿슴니다 그結果京仁에서는從前과變動이업스나 地方에서는한列車便約一日間이나迅速한報道에接하게될것임니다

朝鮮日報社

◇寸鐵◇

◇【安州】 漆谷俊鉉에잇는各個團體들의集會時間은例事로三四時間의 에누리를하는데當地警官들은時間前부터 와서기다린다 集會者와警官과時間勵行을折衷함이如何?

◇【永興】 面所와警察署가協議하야 所謂模範共同便所라고市內三十餘個處를드려 三衛星에細외노핫다는것이 大便所는다 諺殷臭氣는 요모양으로만宗하면人民이미듬수잇슬가

◇【海州】 城內各料理店에는 나날이나 大盛이라고 每月卄一日만되면 난 장판이 야단 법석이다 이것이 翌年의 兆인가

◇【鎭南浦】 요사이新浦에는競爭發生道士가왓는데 日今三丸을 하고自期地上에한다나 此亦一 週死!

日本東京에서 赤旗團密計發露?

경시텽이대활동한결과 조선인리민환등을데포

동경경시텽고등과(東京警視廳高等課)에서는 수일전부터형사(刑事)를사면팔방에 파견하야 향경비밀리에 대활동하든중 함경북도(咸北)출생인 리원(李源)조(三)과밋리민환(李民煥)을 조도뎐(早稻田)방면으로부터 인치하고방금엄중취됴중이라는데 사건의내용은절대비밀에부치나 모처의탐문한바에의하면리원은 공산당(共產黨)적긔단(赤旗團)을조직하고 단원약일천명을 모집하야리동휘(李東輝)를단장으로하고 자긔는 부단장이되여 서모중대계획을 하다가 리동휘는그자금을 조달키 위하야작년말월에 로서아(露西亞)로 가고 리원은단원을 지휘하야경성을 중심으로 각처로 밀행하다가동지 십여명은 관헌에게데포되엿슴으로 리원은독시 동경으로도 주하야 나머지단원을 모와가지고재차 활동을하라다가 그와가티데포되엿다고 전하는것인바 경시텽에서는 그잔당을 데포코자방금활동을계속중이라더라 (동경뎐보)

日本共產黨事件

被告二十六名에對한求刑

범죄사실명백하다하야 검고일년과십개월구형

계리언(堺利彥)이하이십륙명에대한 공산당비밀결사사건(共產黨秘密結社事件)의 속행공판은 삼십일오전열한시부터동경디방재판소(東京地方裁判所)법뎡에서우야(宇野)재판장심리 석뎐(石田)검사립회하에 금촌(今村)포시(布施)변호사등일곱명의변호로 개뎡되엿는데사실묘사를마친후 검사의 론고에 드러가서비밀결사사건은 가벼웁게 보지못할중대문데임으로 피고 등은사실을 어듸까지 부인하나피고등이예심뎡 에서공술한 바와증거서류를 통하야 관찰하면피고등의죄상은 명백한 터인즉맛당히엄벌에처할바이라한후아래와가티구형하엿더라

堺利彥 高津正道 津田武雄 杉津啓一 楢浦時雄 上田茂樹 吉川守邦 仲曾根源和 山川均 小岩伊藏 荒畑勝三 以上禁錮一年

高野武、辻井民之助、田代正二、野坂參二、高瀨淸、近藤榮藏、佐野學、市川正一、猪股津南雄、荒井邦之助、田所輝明、山本懸藏、市川義雄、渡邊政之助、西正之 以上禁錮十個月

惡地主가覺醒되야 小作運動에全力

소작회장이되야가지고 맹렬히활동하는중이다 所有土地는放賣、分配

전남순텬군황뎐면 대치리(順天郡黃田面大峙里)에사는 박승봉(朴勝奉)씨는 작년경까지는 호남에유명한 악디주로 자긔의소작인들에게 무리한착취와 또는무죄한 그들로하야금 만흔희생을시킨일이 잇서서 순텬에박디주라면 소작인들못살게구는 악디주인줄을 누구나알게 되던터이더니 박디주는지나간몃해동안에또한 이상스러운 력사가잇서왓다 수년전에 자긔의주선과

노력으로 당디황뎐면에소작회를 창립하고 규측이나모든조직까지도 박디주 자긔노력의 산물(產物)이며따라서 그회에회장이 되엿든터인데 그뼈에일반회원과 및소작인들은 무엇으로보든지 박디주를 미들수업는동시에 박디주가 과연리해가달는소작인을 위하야 노력할것인가? 의문을가질게 됨을따라반대가 심하얏섯다 그뼈아측각청이 쥐은

박디주는 자긔의사를반대하는 소작인이면 조금도용서업시 소작권을박탈하야 이작시키며닷는대로 충돌이되야 필경은수삼명의 희생자까지 내이는 동시에 악디주라는 일음이 세상사람의입에 오르나리엇든 터인데 그뒤에차차 엇던뉘우침이잇섯든지 자긔의관계로 희생을당케되엿든사람들에게 차례로 자긔의잘못을사죄하는동시에 하로는자긔집에서

일장통곡 을하고그길로밀어서서 천년에데엿든 소작권을낫낫치 구작인에게로 환작시키고 모든처리가 권원박디주와는 딴사람이되엿다는바 김흥각청이잇(고업)는것은압흘보아알것이나 금춘이월부터 자긔의소유토디일천오백여두락중삼백두락은 자긔큰집으로반환시키고 일천여두락은 뜰어버리는 동시에오십여두락은 빈족(貧族)에게 난호아주고

삼십여두 락은동교(宗敎)및종교에게 긔부하고 산림(山林)또는뽕밧(桑田)이나 대밧(竹田)까지잇는대로뜰어버리되 다만삼십여두락의 토디를 남겨두어서 당분간 크는자식들로하야픔 농사짓는간난과 또는취미를알게하기위하야그것으로서 농사강습소처럼 할계획이라는데 그토디를 뜰어버리는리유는토디그것이착취의긔구(器具)가될으로 토디를 그대로둔다하면아무리하여도

착취성을 조장(助長)하게되는까닭에자긔는그토디로써일반에대하야 큰죄악을 만히지엇다고회개하야 토디그것은원래 국유됨이정리(正理)라는것을 렬뎌히주장하는동시에 디주를버서나는날이라야 련하에사죄가된다는신념하에 채권증서까지도전부를태워버렷다는쇼식이며 (朴東陽)과박긔순(朴琪淳)등을위하야 칠십여명에게바둘돈삼만오천여원을

전부탕감 하야버리엇스며부산부인이해고(解雇)를하얏다는말만들으면반듯이일원이상오원이하의구조를한다하며더욱히금춘부터는소작운동에직접으로가담하야오는중정신뎍으로나물질뎍으로나 만흔노력을 할뿐아니라 압호로 선두에나설것을 선언하고순텬로동 중요간부와 종업원하고 토디를 판돈으로

설립하고 압호로무산청년을수용하겟다는 설계를 말하는중이라는데 호남 각디주들은 박승봉씨의 태도를 주목할뿐아니라 소작회에나 십음매우두려워하는 형편이라하며 평일에박씨가 디주노릇과 모든아당을 다하야주구노릇을 리유하야 일반소작인에게 가진 횡포를하든 사음배들은 원망과락심이자심하는 반면에일반소작인과 무산계급에서는 그의장래를 주목하는동시에 만흔긔대를 둔다더라(순텬)

中等學校리구戰

中央對培材戰、中央對徽新戰

삼십일중에 관계학교의 량해를어더 구대뎍결뎡을 보기에일으럿스나 그는 리구전의진행상 원만한해결이라하기어려웟슴으로 오후에 각학교의 감독자여러분의의견을들어 다시 더조흔 해결을구하고자 로력하엿스나 결국 아직조흔성안이업섯슴즉 상세사정은 추후발표하겟습니다

승냥이가덤벼 아이를물어

피해된아이는치료중

안주군안주면장흥리(安州郡安州面興里)삼백번디황석봉(黃錫鳳)의 아들(六)은 지난이십일 오후일곱시반경에 집을보고잇다가 갑자기 산골에서나온 승량이가덤비어 물고 가는것을 보고 우는소리를듯고 밧헤서 도라오든 부모와 동리사람들은 크게놀내여 쪼처가서 빼아서왓다는데 현장은 류혈이랑자하야 보기에도 몹시참혹하엿스나 다행히 목숨에는 상관이업고 방금안주 성내에서치료를밧는중이라더라(안주)

學生毆打한副面長

學生會에서謝罪를要求

학생전톄를모욕하얏다고 일동이강경히요구하는중

해주로동공제조합(海州勞働共濟組合)주최의각희대회는 지난음력단오날 오전열시부터 예뎡과가티 락열뎡운동장(樂悅亭運動場)에서열렷섯는데 최후에강봉선(姜鳳善)(二○)이라는황해도 사범학교(黃海道師範學校)생도와리수성(李壽星)이라는청년이 승부를 다투다가두사람이 함께 넘어져서 심판원도 승부를가리기곤난하엿슬 지음에사령장(司令長)으로잇든 리룡국(李龍國)씨가 리씨가승리되얏다는 것으로판결을 내리자염헤안커 응원하든

사범학생 들은그판결이 그르다하고드듸여학생중으로부터 대표자 류광손(柳光孫)외 세명을 보내여 회장과 교섭하던중 계원중모(係員某)씨가사범생도에게 이놈저놈욕을 함부로하야 관중까지 사범생을 응원하게되여 에 이르자 그뼈에참석하얏든 해주부면장박창진(副面長朴昌鎭)씨가그대표자중류광손군을 따리어단장이 부러지기까지 하얏든바

해주경찰 서장(海州署長) 도심판의불공평을말하고그학생을 돌리어 보냇다는데 그학생은해주의원(海州醫院)에 가서진단한결과삼칠일이상을치료할 상처를 입엇슴으로 이뼈에참석하얏든 학생들은 매우분개하야 그대로학교에도라와 전교학생에게 이러한말을 알린후즉시 학생회를열고 교장도 이에대하야는 학생들에게만 맛기여

둘수업슨 측버가학생을대표하야 면장과 교섭하야보겟노라하고 이십륙일하오에 충본(沖本)면장을맛나교섭한바마츰 박씨가업서 보지 못하얏슴으로 그대로 도라왓다는바 이제학생회의결의조건을들건대아래와갓다

지금해주부면장 박창진(海州副面長朴昌鎭)은자긔가 그러한디위에잇슴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이러한란폭한행동을하야 전반학생을욕할뿐아니라지금학생들은 범우도자유를세우고저하야 대단풍긔가 문란하다는등 언사를써서 일반학생의 권데를모욕하얏슴즉 자긔로서 저의잘못된것을 깨닷는다하면 우리학생회에와서 사죄를하고 또는각조선문신문에 삼일을계속하야 사죄광고를 내일것이라 하얏다는데하회가엇지될는지일반은매우주목하는중이라더라(해주)

清雅한音樂으로 勞働동무들을慰安

긴여름의고염을압두고 쇄락한심신을베르고자

◇本社鎭南浦支局主催로

일난풍화(日暖風和)하고만화방창(萬和方暢)한 환락(歡樂)의봄이 다디의한모퉁이인 진남포(鎭南浦)를차저온지도벌서오랫건마는 갑업는봄! 주인업는봄도오직돈잇는몃사람의봄만되여버리고 공장(工場)에서 역장(役場)에서 직공(職工)들과 로역자(勞役者)에서애태우는 로동자들은만나도 보지안코 어언간그처또자최를감추어버리고난데업는고염(苦炎)의긴여름만그윽히무산대중(無產大衆)의압흘가로막고서잇다 이에본사진남포지국(鎭南浦支局)에서는 시내에잇는로동자(勞働者)직업부인(職業婦人)뎜원(店員)직공(職工)등 천여동무의피로(疲勞)한생명(生命)에힘잇는선률(旋律)을 이르켜다시사는생명에긔운찬 「에네루기」를 보내이고 커동디 신흥청년회(新興靑年會)와친목회(親睦會)로더부러데휴하고 음악계의 남녀명창 삼십여인의출연을기다려오는사일(土曜日)밤일곱시반에 동시(同市)신흥리(新興里)감리교회당에서로동음악회를 개최하기로되엿는데 입장료는 무료로하되 장소를정돈하기위하야 미리입장권을 발행하야 배부할터이며 흑배부가 고로히 되지못할것을 념려하야 본보란외에 보충입장권을 따로히 발행하기로하엿더라(진남포)

時雨洽足과 勞賃激增

전북김뎨디방에 풍년노래가한창

전북김뎨(全北金堤)에는올비가적게옴으로 일반농가의 우려가적지아니하엿는데 지난이십칠일부터나리는비는모심으기에뎍당히 왓슴으로 여긔저긔에 농가에서는 모심기에 분망하야 농상에 가득하든 농혼에 참밧부다는데 만경면동지산(萬頃面東之山)근처에는 「이삭여두락」을 짓는이가 잇서 남보다 하루라도먼저심으라고서로 야단이어서 인부의삭은하루에 세끼의 밥녁주고도 일원오도 부러일원삼사십전까지향오도일 반비한한 농가에서는 모심으기에 대단한곤난을밧는다더라 (김뎨)

光州印工態度强硬

타처에서고용한직공도 무산자도덕으로귀향

광주(光州)목산인쇄소(木山印刷所)에서 직공심복섭(沈福燮)이를무고히 해고한것이 문뎨가 되야동맹파업을 행하고 따라서 죽구(竹口)인쇄소직공일동도동뎍파업을 단행하엿다함은 이미보도한바어니와 그후 직공측에서는 태도가강경하야 직공전부를무조건으로 복구하기전에는 결단코 일을안하겟다 주장하고잇섯든바 공장주측에서는 한달만잇스면 직공들이 자연히와서사정하리라하고 간악한 수단을다부리여 마튼인쇄소에 보내엿스나 그공장에서도 파업할념녀가 잇슴으로 견부거절을당하고전남(全南)에서로모집하엿스나 그도 여의치못하엿고직공김홍택(金洪澤)외에 두사람을전북남원(全北南原)에서초빙하야 왓든바 아모런줄을 모르고와서보즉 동맹파업을 당한인쇄소임으로무산자의도덕으로 도저히 일을할수업다하고지난이십팔일에일제히 고향으로도라갓다더라(광주)

父子爭訟

原因은財產

서자가뎍자라고 아비걸어서고소

함흥(咸興)에백만장자인 한시은(韓時殷)의집에서는 얼마전부터재산분배청구소송(財產分配請求訴訟)문뎨로리지안케 뒤떠들어서

그아비를 걸어장자유곤(裕坤)의디위를빼아서가지고만 원재산을 자긔가 차지하고자하는것이라는데 원고위곤은 자긔가뎍자(嫡子)요도민적상으로보면자긔가유곤(裕坤)이보다두살이나 더먹엇다고 주장하는동시에 전재산의 이분의일을 청구하야 그가긔 소송까지 이르키엿슴으로피고(被告)인아비는

부자간에 재산다툼으로 소송까지 하는것이 세상에붓그러운일이라하야 백방으로 원고위곤을 회유하야 청구내로는못되지마는 상당한재산을 쎄여주고원만히화해(和解)하려고애를썻스나 위곤은종래에듯지아니하고 그냥소송을 진행하야재관리일이 오는 삼칠일이라는데원래위곤은한시은의첩(妾)김금옥(金錦玉)이라는기생(妓生)의몸에서

낫슴으로 서자(庶子)인 것이분명하고유곤(裕坤)은본처인리씨(李氏)에게서 난 뎍자(嫡子)인것은더말할여디가업는것이오 년령으로 말하더라도들이다 가튼해에낫스나 위곤의생월이 칠월인데 유곤은 삼월이생월임으로 유곤이가 뎍될것은사실이오 기타여러가지 증거가력력히잇다더라(함흥)

惡地主라는朴勝林의 小作權賣買續報

돈만바다먹고논도안준바 피해자의입으로사실폭로

內外山農民의生活不安

호남에서 악디주로 유명한전남순텬군(全南順天郡)황뎐면 (黃田面)대치리(大峙里)박승림(朴勝林)은구례군(求禮郡)산동면 내산외산(內山外山)두면에잇는자긔의 소유토디를 오원이상의 돈을밧고소작권을 팔엇다함은 본보에 이미보도한바어니와 이제 또그후에발생된사건을 드러보면

묘사한즉 승림의차인박학서(朴鶴緖)는 외산면 탑뎡리(塔亭里)리한두(李翰斗)에게대하야 돈삼십원만 주면시상리(侍上里)한영수(韓英洙)가소작하는논 사두락을 주마고외산리(外山里)안해섭(安海燮)을중개인으로하야 루차 요구함으로 리한두는 곳삼십원을 주엇더니돈만바다먹고상금까지논도주지아니하며 돈사리(市寺里) 강인수(姜仁洙)에게

돈십오원 을주면소작디를 준다든고로 강인수는 돈십오원을주엇더니 준다는소작디를 주지아니할뿐만아니라종래에소작하든소작디까지주지아니하며 지완동(池玩東)을주고강인수가 내인디세공과금까지주지아니하며 원촌리(院村里)공긔주(孔基周)에게사음(舍音)을식히엿든 터이니 돈백원을 내라함으로이십원을주엇더니돈만

바더먹고 사음은주지아니하엿다더라

줄터이니 얼마간기다리라 한중이며원촌리장진옥(張瑨玉)이가소작디삼두락을하든중인데회서는말하되당신은원래가난한사람이니독특원만내라함으로개인이외구이중(具以仲)의 집에 주식비 일원몃십전이잇슴 즉 그것이나 갑하달라하는것을 또돌봉하얏더니 그러면 소작디를 이동하겟다하고 갓스며돈사리장시봉(張時鳳)의소작디

이두락을 떼어리평리(梨坪里)소문현(蘇文鉉)을주고디세도 주지안흐며동리조소월(趙小月)이라는 과부는종래에 두오승락을 소작하야 근근히생활을하다가 작년에는 한재가심하야 전수확을 다하야도소작료가부족함으로 소작료를 얼마간감해주기를 사정한즉 금년에는 그대로 벼이면 명년에는그러치안코 분명할터이니 소작료를 정한대로 내라함으로 조소월은그대로주엇더니 금춘에

소작권을 이동하고아즉까지 디세도 주지안는다하며 동리디완규(池玩圭)는 종래에 이두오승락을 소작하든바 박승림이 작년에는 소작료를 주지안켓다하며 영구소작권을 주마함으로 원규는그대로 주엇더니 근일에와서 이동하는시긔에 외산리안석규(安錫圭)에게는 승림의 사음안병정(安秉正)을 식혀서 돈(錢)한퇴를 정함으로주엇섯는데 근일에소작디를부단히이전하고디세도주지아니한다하며 량경도(梁敬道)에게 산두락과 김녀환(金今煥)에게 이두락과 김송환(金宗煥)에게 이두락과 서상대(徐相大)에게 이두락과 량긔수(梁基洙)에게 이두락을 박탈하얏다는데

그내용을 들은즉엇더한사람이든지소작소개료(小作紹介料)를주지아니하면 소작디를 주지아니하고 소작소개료를 바더먹엇다하더라도 먼저 바다먹은돈보다 더만히준다는 사람이 잇스면 또그사람에게 이동해주고 긔외가티 횡포무도한 행위를 하는것이라 엇던 소작인이든지 돈주지아니한사람은업스나소작을어더부치는사람은별대로사실을 은익함으로

묘사한즉 가업고다만돈을주고 논을어더하지못하는 사람은 자긔 돈잣기위하야 사실을 말하는것인데 박승림이여당은 고소를할모양이라더라(구례)

生活難으로 自刎하고投池

구조는하얏스나 생명이위독하다

정읍군태인면태창리일백구십일번디(井邑郡泰仁面泰昌里)신태일(申泰一)의처김녹순(金祿順)(三三)은금년사월초생부터신병으로신음하든중 약을구하야 치료하기는 고사하고 어린자식을다리고 긔근에이기지못하야 이것을비관하고 지난 이십팔일구시경에태인읍내함벽루(涵碧樓)아래큰못가에서 약다섯치 가량되는식도로 자긔의목을 찔으고 또배를찔럿스나 곳죽지 아니함으로다시 그못가운대에 싸저잇는것을 여러사람들은 크게소동을일으켜서 곳구원하엿스나 다시는살기가어렵다고한다더라(태인)

高敞記者團創立紀念 湖南庭球大會

칠월사일、오일이틀동안

고창(高敞)긔자단에서창립일주년을 긔념하기위하야 동아、조선、매일의각사지국주최로호남뎡구대회(湖南庭球大會)를오는칠월사일、오일의량일동안고창고등보통학교 『코-트』에서 행할터인데 참가규뎡은 삼조일단에신청금일원을 첨부하야 칠월삼일오후구시에 고창긔자단 사무소에데출하라하며 추첨은 칠월삼일오후구시에 행할터이며 상품으로는우승긔, 메달, 라올등이잇다더라

五圓金에 남의딸을빼서

이상한일인의행위

아산군온양온천(牙山郡溫陽溫泉)에서로동을하야가면서 근근히생명을 붓드러가는 안정력(安正澤)은 자긔의딸 옥녀(玉女)(六)를 당디온천에서 료리뎜영업하는 순마(服部)라는 일본인에게 빼앗김을당하야 한참일에 반여돈이 놉핫다는데 이제그자세한사실을 듯건대 전긔안정력은수마의 집에가서 품을팔든중지나간 륙월초순부터는 일할것이업슴으로 자긔고향인 안정을 나려가고 업는중에 그안해는먹을것이업서 생각다못하야 어린아이를 압세우고 전긔수마의집에 가서 사정이곤난함을말하고 품갑으로 돈을좀 달라 하엿는데수마의집에서는 가장부순 동정이나엇는듯이 그러면아이나 먹여 의처는 감사하다를표하고 아이를두고 간것인데 그뒤에안씨가 도라왓섯스나역시먹을것이업서 다시 수마에게가서 품갑으로돈이원만 달라한즉 수마의집에서는 무슨까닭인지 안씨가청구한 액수보다 배나넘게 오원금을줌으로 역시감사하다는 말을하고 도라왓섯는데 그뒤하로는 순마가 안씨를차저와서 말하기를그 아이의 민적을파서 아주자긔수양녀로하야 달라함으로 안정력은그제야 수마의간휼행동이 자긔딸을 빼앗고자 하는줄알고이에응치 안흠은아니라 그시로자긔딸을 다려오려한즉 순마의집에서는 주지안코 만일다려갈려거든 이면 이아이를그동안 먹인갑과돈오원을 당장에가져오라 함으로 안씨는 졸디에돈은 판출할수업고딸은빼앗기게됨으로당디경찰서에까지 애원을하야 차저오기는하엿스나 전긔수마는 돈을가져오지 안흐면아이를 도로빼앗아가겟다고 송장을 하는중이라더라(아산)

臥龍洞住民恐慌

三十戶가流離될地境

산림을뜨더먹고살든터에 학교조합에빼앗기게되야 總督府에陳情할計劃

의주군수진면석숭산(義州郡水鎭面石崇山)북방에잇는와룡동(臥龍洞)과덕현동(德峴洞)은산간벽촌으로 토질도 조치못할뿐더러 겸하야경디(耕地)가 적음으로 일반주민은 농업외업은 비로도 그산림에서구하며 조반석죽의생계도 대번에역시 산림의시초(柴草)를버혀서 시장에지고가서 팔어다가 그날그날을보내는바 약칠팔년전

구분도사(區分調査)할뼈에 무리한당국자들은 넷적부터그산에국유와민유를구별키위하야 관령으로서 그산주복에잇는암석(岩石)에금표(禁標)라고 각자한경계선이잇슴에불구하고 조선뼈부터 민유로 서로매매하야오든 삼백여뎡보나되는 산림을함부로 국유에편입하야 오늘까지오든바 근일에는 그림야를 의주학교조합(義州學校組合)에

대부하야 준다는풍설이 생기자 우리전주민의사활문뎨인즉 이것이대로잇슬수업다고하야 업슬만정 그림야의금양(禁養)도상당하야 약삼분의이는십여년된수목으로첫젓스며 더구나 구삼림령(森林法十九條)에의하야 한디적계(地籍屆)도이미데출하엿고 기타민유인것을 참고할만한서류도 상당히엇엇다는데

이러함에 불구하고 당국에서 국유라는것을 그곳주민 부하지아니하고 업도당로 아니 것이고 허빗은 다함으로일반이 전부분개한다라(의주)

醉後言爭으로 毆打致死

가해자는도망

지난륙월 이십봄일 오후다섯시경에 평북녕변군 봉산면고성동(平北寧邊郡鳳山面古城洞)어느술집에서 살인사건이 생겻다는데이제 그자세한 내용을들으면 동군봉산면 고성동 박창덕(三○)과 동군봉산면 조양동김귀흥(同郡鳳山面朝陽洞)(三三)과 술을마시며 놀다가취한김에 대단스럽지 안흔일로언힐을하자 박창덕이가 술상머리에잇든 사이다병을 들어김귀홍의머리를 때려서 큰상처를내엿는데 김귀홍이는 그이튼날오후여섯시경에 사망하엿슴으로 당디최공의(崔公醫)는즉시현장에출장하야 해부검사한 결과깨여진상처로 부터피가 만히나와죽엇다는데가해자박창덕은어대로 도망하엿다더라(녕변)

元山海水浴場은

해림교육준비

원산해수욕장(元山海水浴場)은 나날이 번창함을따라 칠월상순 경부터 시내각학교에서는 해림교육(海臨敎育)을일제게시하며 상무회수영부(尙武會水泳部)에서도 하동(河東)양청에 진력하기로하야 칠월십일일부터 교련을 련습하기로 목하준비중이라는데 회원은 누구든지될수잇스며 회비는이원부、일원부가 잇다는데 신립처는 경찰서중학교녀학교해수욕회사사무소 (警察署中學校女學校海水浴會社事務所)에서수부한다더라(원산)

叔姪間에財產爭奪

삼촌을걸어서고소데기

피고인삼촌은종적묘연

전남화순군능주면관영리 (全南和順郡綾州面官永里)량회순(梁會淳)의집에는 지난 이십사일오후한시경에 소관화순 경찰서경부보이하륙칠명의경관이출장하야 비상선을 느리고 드시외인의출입을 금지하고가택수색(家宅搜索)한결과 뎨일차로뎍모히 가경관의눈에띄엿다는데량회순은 경관의눈을 긔이고금고의열쇠를가지고 도주하야 지금까지종적을 알수업다는데 수색을하든

경관들은 주야로엄중한 경계를 하다가 할수업시 금궤를 열지못하고인표(印票)만부치고 갓다는데 이제자서한내용은 이월에량회순의부친이광주(光州)에갓다가 객디에서사망한바 이금보를바든 차남(次男)량회순은 자긔처김보와 자긔장족하량승면(梁承勉)(二○)의집에달려가서형수와 족하들이 부음을바더참황분주한틈을

타가지고 자긔부친이 평소에가지고사용하든 렬쇠를 가지고 토디、채권문서와 금뎡어리와 현금 여러가지를노조리집어간 일이잇섯다는데 그후상속인량승면이가 불평을 이르킨결과 이돈지량회순이가 친척회의를열고 가저갓든문서를내여노흐며 사천여두락의토디를 분배하얏는데 아니함으로 숙질간에 소송이 한날이업더니 요사이 또량회순이가 토디권부를

가등긔를 내인다함으로 이를분개한 량승면은 여러가지증거를모아 광주검사국에 고소를 데긔하얏슴으로 면석고리 (面石古里)구진남(具珍南)량회순의 부친의 친구동면장뎡리(同面長亭里)주윤술(朱允述)씨집도 가택수색을하엿다더라(광주)

密陽에늑대出沒

인축을해하다

밀양군하남면 수산리(密陽郡下南面守山里)에서는 금춘부터밤이면늑대가횡행하야피해가적지 아니할뿐더러 사람에게까지 위험이잇다는데 지나간 십사일밤에는그동리리상필(李相必)의도야지두마리를물어갓다더라 (밀양)

醜婦의背夫逃走

본부는고소데기

거제(巨濟)일운면와현리(一運面臥峴里)김병준(金丙俊)의안해윤순악(尹順岳)은 동면삼거리(三巨里)옥권환(玉權煥)이란자와비밀히 정을통하야 오든바본월초순에 남편이 출타함을긔회로하야 간부와함께 간부의집으로 삼거리에 장복하얏든바 본부김씨는

팔방으로 수색하다가결국산거리에서 간부와함께 자고 안해에게 간절히청하얏스나 그는종시 거절함으로마지못하야 리혼수속을 하기위하야 그녀자를다리고 그면사무소로 오든중 문동리(門東里)류극중(柳克仲)의집에서잠간휴식할지음에 간부옥권환이가 또차와서

어떤날밤 에간부는그녀와함께 마산(馬山)방면으로 도주하얏슴으로 경찰은 수색중이라하며 일반은 간부간의추태를 타매한다더라(거제)

安東흠치와 社會의輿論

풍긔문뎨가 새로생긴까닭에

경북안동읍내법상동(慶北安東邑法尙洞)유림한수림속에 보기만하야도 구역이날만한 뚱칠한 간판을부친 소위 보천교정교부(普天敎正敎部)가 잇는데 그들은 금춘이월경에소위 시국대동단(時局大同團)과 련락하야선뎐강연을하라다가당디청년의 렬렬한 반항을 맛고사방으로 흐터진후에는 얼굴도볼수업시 잠복하엿다가 밤이깁고 인적이 끈치면 간간이 다시 긔괴한 처소에모이여 상투쟁이들이모히여들어 흠치흠치를 부르는바 일반은그들을가르쳐독갑이작란이라고하는중이러니 근래에와서 그의 가장부녀들의 출입이 빈번하며 밤마다 출입하는 젊은 부인들은 거의 청춘과부와 량가부인이라는데 이지마는 무사한패이라도 아닌밤중에두어시간식이나 불도안켜노흔방안에서 교제가 만타는 소문이 파렬으로 당디사회 에서는 일방으로진상을묘사하는동시에 박멸책을강구한다 더라(안동)

土地賣買費用을

소작인에게바든자

전남순텬군 악디주김한모(順天郡黃田面地主金翰模)는 거월중에동군왕디면 회룡리와덕림리(回龍里德林里)에잇는 토디이십칠두락을 새로히 산일이잇섯는데 그토디를살뼈에 조홍식(趙興植)이라는사람이 소개하얏슴으로 디주는소개비 대신으로소작권을전긔 조홍식에게 허락하얏는데 조홍식은그것을 긔회로하야 그토디에대한 매매시비용이라는명목으로 매두락 삼원이상오원이하 각등급별로 소작인에게바든것이 발각되야 동면경관주재소에서 엄중히 묘사중이라더라(순텬)

面書記가毆打

피해자측은고소할터

경북군위군 우보면서긔 조운호(慶北軍威郡友保面書記趙雲浩)는지난 이십팔일에 모심는것을 감독하기위하야리화동(梨花洞)에출장하얏다가 그동리 농민박을학(朴乙學)을무수히란타하야 박을학은 방금병석에 누엇다는데 그원인을 들은즉면서긔 조운호가 박을학의곳으로 와서 박을학은 동무들과류당을 하엿다 는데 조운호는면서긔를보고 욕설을한다하며 박을학을 물논에서구타하엿슴으로 박을학의 측에서는 고소를 하리라더라

清德女史의 머리에서舍利

봉안식을거행

경북경산(慶山)군수조정환(曺正煥)씨의 모친 하청덕(河淸德)녀사는 삼십년동안 불교(佛敎)를 독신하든중 지나간륙월팔일에 머리에서 사리(舍利)두개가 나왓다는데 크기는 인단(仁丹)만하고 보통눈으로는잘 뵈이지안흐나 현미경을 대고보면 부처의 형상과갓다고 지나간십일에은해사(銀海寺)에가서 봉안식 (奉安式)을하엿는데 관객이일천여명에달하엿다고 (대구)

妹夫、때려서 생명이위독

김뎨역전석천농장 (金堤驛前石川農場)의고원서창규(徐昌奎)(三二)는 지난이십이일오후 오시반에자긔집인 김뎨면신풍리(金堤面新豐里)오백칠번디에서역전(驛前)작권회소(作權會所) 의소사로잇는 자긔처남 김창원(金昌元)이가술이 취해가지고와서 설왕설래하다가 언쟁이되여서 김창원은 자긔의매부인서창규를 발길로 나려차서 중상을 당하게하엿는데 가해자는 즉시당디경찰서에구인취됴중이며피해자는읍내상촌의원(上村醫院)에입원하엿다는데 병세는심히중하야생명이위독하다더라(김뎨)

獨逸人의돈흠치고 징역일년륙개월

지나간사월에대구뎡거장부근에서 독일인(獨逸人)의 양복주머니로부터 현금오백사십 여원을 홈치다가 경관에게 데포된전라남도광주(全南光州)출생의김동순(金東順)(三○)은 지난 일에 대구디방법원에서 공판을 개뎡하고 심리한후판견(坂見)재판장은징역 일년륙개월을 선고하엿다더라(대구)

◇鄭氏去處不明

경찰이방금수색중

전라남도장성군북이면원덕리(全南長城郡北二面院德里)정긍조(鄭肯朝)씨의장남 정긍소(鄭肯昭)씨는 지난달초생에무단출가한후 지금까지 소식이업서 한달이 넘고그의부모는관계경찰에 수색원을데출하고 주야로 찻기에 밧분중이라는데 전긔뎡씨는 원래동군 삼북공립보통학교 교원으로잇다가 퇴직한후 세상을비관하는 긔색이 잇섯슴으로혹 자살이나 아니하엿는가 하야동디경찰에서도 각처로 수색중이라더라

薄情한男子

안해시톄를 대면도안했다

평양부루려리김상봉(金尙鳳)(三二)의처백씨(白氏)(三二)는남편이첩에게혹하야자긔를 도라보지아니하는것을 원망하야 대동강에빠저죽엇는데 시톄는 이십칠일 원암(猿岩)이란 대동강 하류에서발견되엿는데 그남편을 차저 인도하려한즉 밧지아니하고 아니라그시톄를보지도아니하엿다더라(평양)

毒殺未遂

밥갑독촉한다고 밥에약을탓든자

충북뎨천군 뎨천면장락리(忠北堤川郡堤川面長樂里)약종상정춘만(鄭春萬)(四○)은지난이십일에 그집주인리재옥(李在玉)(三)이가밥갑을 독촉한다고리재옥의 밥에 독약을 넣어서 암살코저하다가 발각되야 당디경찰서에 데포되야 방금엄중히 취조를받는중이라더라(뎨천)

本妻를娼妓로

팔고자부루간다

지난이십사일 천천군심천면 강시(川郡深川面江市)에서 음식뎜영업(飲食店營業)하는원응도(元應道)의집에서이십이삼세의 젊은녀자에게매하야 나는 너와살수업스니 창기(娼妓)로팔

휘파람

▲일전해주사범학교음악회날밤에북산에서 원뒤솔밧에서는엇던 양쪽씨는녀자하나이소요하려다니든사람의인격에놀래여거더쥐엿든 치마자락을 해간남자를 다시기다리든다양인지 살펴낸데숨나무업해서무안하여얼골도서도 시침이를떼고잇다가▲밤만기다리며도아니오매그만영영복오로도라서나 국부인명김○○는리고말지면 으로쏫틀어가고말엇다▲그때 안에서는야학갓다가 인제오나?하엿스나 답、아마가승이 라오흔모양、그러나아헐은 본명월다나는모 양이나그야(夜)자와야(野)자 는찻질이 본래부터 달은지나아는지?